

04 2016 현대건설 기술대전 스케치
Overview of the 2016 Hyundai E&C Technology Awards

08 소설가 장강명 인터뷰
Interview with writer Jang Gang-myeong

10 서울 3대 전통거리 탐험
Exploring the three most famous traditional streets in Seoul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 신고번호 종로 라00049



싱가포르 도심을 수놓는 금빛 물결

사우스비치 신축공사

South Beach Mixed Development

News 싱가포르의 도심 사우스비치 지역에 화려한 금빛 물결을 연상케 하는 건축물이 등장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이 공간은 36층 규모의 오피스, 45층 규모의 호텔·레지던스, MRT 연결공사, 문화재 복원 건물 등이 함께 들어선 초대형 복합시설이다. 2011년 8월 착공해 준공을 앞둔 사우스비치 신축공사 현장은 싱가포르에서 현대건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 있다. **▶** 관련기사 6, 7면

A stylish wave-like structure has emerged in the South Beach area of Singapore. The mega-size mixed development project conducted by Hyundai E&C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a 36-storey office building, a 45-storey hotel and residential complex and the underground connection to the MRT system, and even the restoration of a cultural heritage building. Korea's primary builder gained solid footing in the island city-state as the company is looking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South Beach project which started in August 2011. **▶** Continued on page 6 and 7.

아름다운
동행
스토리를
공모전

Go Together

함께해서 더욱 빛났던
여러분의 아름다운 상생협력 경험을 기다립니다.

용모자격 현대건설 및 협력사 임직원 누구나

공모내용

주제 현장 근무시 있었던 훈훈한 상생협력 미담 스토리
수기 협력사(현대건설)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 감동 에피소드
감사서신 마음을 전하고 싶은 협력사(현대건설) 임직원에게 보내는 편지글
분량 A4 1매 내외
접수 news@hdec.co.kr (이메일 접수)
※내용에는 현대건설 근무 현장 및 소속 회사명을 명기 바랍니다.

시상 내역

대상 / 1명	최우수상 / 2명	우수상 / 3명	가작 / 10명	Go Together상 / 1개 현장
가족여행상품권 100만원 상당	아이패드 미니2	백화점상품권 10만원 상당	현대사산농장 서산미 10kg	가장 많은 사원이 접수된 상생현장에 이벤트 개최

문의 현대건설 스토리 공모전 담당자 ☎ 02-746-2711 ✉ news@hdec.co.kr

공모 일정
2016. 10. 7 ~ 2016. 10. 28

그룹사 소식

현대자동차, 英 테이트 모던에서 '현대 커미션 2016' 개막

세계적인 예술가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가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영국 런던에서 작품을 전시한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일 영국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Tate Modern)'에서 영국 판매법인 사장 토니 화이트혼(Tony Whitehorn), 테이트 모던 관장 프란시스 모리스(Frances Morris), 전시 작가 필립 파레노 및 글로벌 언론매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 커미션 2016(Hyundai Commission 2016)'의 개막식을 개최했다. 현대자동차와 '테이트 모던'이 체결한 11년 장기 파트너십의 일환인 '현대커미션'은 현대미술의 지평 확대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전시 프로젝트로, 매년 새로운 작가를 선발해 초대형 전시실 '터바인 홀(Turbine Hall)'에서 개최된다. '현대 커미션'의 두 번째 작가로 선정된 필립 파레노의 작품은 내년 4월 2일까지 전시된다. 사진 제공: Tate Photography



현대엔지니어링, 2016 하반기 경영설명회 실시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말레이시아, 터크메니스탄 등 해외 6개 국가와 국내 3개 지역에서 하반기 경영설명회를 실시했다.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공유해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회사 발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됐다. 현장 임직원들은 이번 설명회가 본사와 현장 간 소통의 폭을 넓히고 향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현장·부서 소식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공구, 심곡터널 관통 성공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이 지난 9월 23일 4948m에 이르는 심곡터널 관통에 성공했다. 심곡터널은 사업 중 지반 조건이 가장 취약한 구간으로, 공사 초기부터 난공사가 우려됐으나 단 한 차례의 사고 없이 관통됐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공구 현장은 충북 단양군 매표소에서 대강면에 이르는 총 12.5km의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공사로, 우리 회사는 2014년 1월부터 토공사 외에도 터널 2개소, 교량 4개소, 정거장 2개소(도담·단양), 건축공사, 궤도공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PHOTO NEWS



Boosting communication

CEO Jung Soo-hyun had a casual lunch meeting with fifteen foreign employees. The meeting was held at a hamburger restaurant near the headquarter. During the meeting, he discussed every participant's ideas and suggestions for the company.

Hyundai E&C is planning to enhance our systems for foreign human resources and increase communic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employees in order to help them achieve an equivalent sense of belonging as a Hyundai E&C employee and be committed to making the bright future for our company.

신속한 실행력과 글로벌 경쟁력으로 불황 파고 넘는다

지난 10일, 10월 조회 실시

정수현 사장이 “긴장감을 갖고 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때”라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진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직원의 자세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0일 서울 계동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조회를 실시했다. 4분기 시작과 함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막바지 스피트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조회에서 정 사장은 세계적인 위기관리 전문가 미셸 부커의 ‘회색 코뿔소’ 이론을 언급하며 예견된 위기신호에도 안일



정수현 사장이 10월 조회에서 임직원에게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무사안일주의’와 ‘단기적인 성과주의’ 때문이라며 중장기적인 대응전략과 기동성을 갖춘 실행력

배양에 힘써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한 “의사결정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자신”이라

며 “상명하달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각자가 능동적으로 필요 역량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타개 방안을 모색해야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경쟁력 강화를 독려했다.

한편 이날 조회에서는 지난 8월 최종 심사를 마친 ‘2016 현대건설 혁신대상’ 시상과 함께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공기기술사’ ‘소방기술사’ 등 기술사 취득 직원에게 공로장이 수여됐다. 다각적인 안전관리 노력으로 전 공정 무재해를 기록한 ‘문정 2구역 엠스테이트’와 ‘현대 해상화재보험㈜ 곤지암 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에도 각각 포상이 이뤄졌다.

October monthly meeting held

Our company held the October monthly meeting in the head office on October 10 with the attendance of about 600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This month's monthly meeting was designed to encourage our employees to achieve business

goals in good time for the beginning of the 4th quarter. Citing “The Gray Rhino” by Michele Wucker, a renowned risk management specialist, CEO Jung Soo-hyun asked our employees to strive to have executive abilities together

with medium-and long-term risk response strategies and mobility since complacency and a focus too much on short-term performance lie behind delayed responses to expected signs for risks.

“You are the one who is the backbone

of decision making process,” said Jung. “We can survive in the age of limitless competition only when we break with the top-down, passive business model and become more active in developing what we can do and seeking effective ways to solve business problems.”

대학생 초청, 드림빌딩 프로젝트 개최

우리 회사 23기 차세대 리더보드(이하 NLB)가 지난 9월 28일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미래 잠재 고객인 대학생 남녀 50여 명을 초청해 꿈과 비전을 찾는 ‘드림빌딩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2015년 실시된 CEO 간담회에서 언급된 ‘여학생들이 미래의 잠재고객’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획된 이날 행사에는 NLB 위원들이 직접 대학생과 소통하며 꿈과 비전을 설계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 후 이어진 만찬에 참석한 정수현 사장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 시작은 목표 설정에 있다”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실천 과정이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다”고 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드림빌딩 프로젝트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정수현 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드림빌딩 프로젝트 본 행사 외에도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관람, 사업영역 소개, 질의 및 응답 등의 시간이 마련돼 우리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BIM Awards 2016' 수상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이 지난달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buildSmart Global Conference 2016’에서 ‘BIM AWARDS 2016’ 건축부문 대상인 ‘빌딩스마트협회장상’을 수상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3차원 설계도구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건설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델링하는 첨단 기술이다. 이번에 열린 BIM AWARDS는 BIM 활성화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빌딩스마트협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의 BIM 경진대회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BIM AWARDS에서 첨단건축연구팀 김진우 차장이 ‘빌딩스마트협회장상’을 수상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국내 최대 수량의 비정형 메가트러스(Mega-Truss) 프레임과 단일 건물 내에 18개의 서로 다른 복합시설을 시공해야 하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현장에 초기 단계부터 시공까지 BIM 기술을 활용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내 최초 ‘스마트폰 Key 시스템’ 개발

우리 회사가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에 ‘스마트폰 키(Key)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적용한다.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은 아파트 공동 현관이나 세대 현관 출입 시 별도의 키를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한 기술이다.

우리 회사는 이미 건설사 최초로 키를 꺼낼 필요 없이 터치만으로 출입이 가능한 UKS(Ubiquitous Keyless System)를 개발해 힐스테이트에 적용했으나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키는 물론 터치도 필요 없어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안 문제도 해결했다. 또

한 배터리 소모를 대비해 단지 진입 시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고, 공동현관에 도착하면 블루투스 리더기가 입주자의 스마트폰을 인식해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의 도입으로 최근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아파트(IoT) 시장에서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브랜드가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공사 중인 힐스테이트에 기술적 검토와 입주민 협의를 거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10월 분양

우리 회사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송도 6·8공구) A13블록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는 지하 2층~지상 43층(옥탑층 제외) 9개 동 총 889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84㎡~745세대(A·B·C) 99㎡~136세대(A·B) 129㎡~8세대(A·B·C·D·E) 등 총 10개 주택형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3% 이상을 차지한다. 워터프런트 입지조건으로 바다와 호수 조망(일부 세대)을 누릴 수 있고, 향후 5000여 세대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 조성으로 브랜드 프리미엄 또한 기대



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모델하우스는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2번 출구 인근(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58-1번지)에 마련되며 오는 10월 14일부터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 문의 032-834-8890

Korean models take the global fashion stage

Sept 22

Diversity and inclusion have become an important and respected values around the world, but the top tier of the fashion industry has sometimes struggled to keep up.

The major shows of the top designers' collections in the four fashion cities of New York, London, Milan and Paris usually feature designers from Europe or North America, and are frequently dominated by white models. Many models of color compete for a small number of spots.

In this tough scene, some Korean models are paving the way to make a spot for them and other Korean models on the runways of the top fashion labels. Even during the recent fashion weeks in New York and London, many Korean faces were seen walking the runways wearing designs from the most talked-about brands.

Korean models have been gaining a great deal of buzz, especially since last season. In March, at Chanel's Fall and Winter collection in Paris, three Korean models including Shin Hyun-ji, Choi So-ra and Soo Joo (Park Soo-joo) made it on the runway. The Chanel show, long considered proof that a certain model is influential in the industry, featured 94 models - three mod-



Choi So-ra



Shin Hyun-ji



Lee Bom-chan



Park Ji-hye

els were from Korea, three from China and one from Japan.

"There was no time to be nervous because I had to pay attention to the complicated walkway," recalled Shin who worked with Karl Lagerfeld, the creative director for the brand. "But I cried so much in my head because I was so thrilled."

Local agencies have been trying to build a network with global agencies as well. These companies have invited casting directors to Korea so that they get a chance to see the local scene and find some jewels.

The history of Korean models working internationally is not very

long, and some of the first ones to work outside of Korea were Jang Yoon-ju and Song Kyung-ah in the early 2000s.

Many other Korean models also contributed to breaking the glass ceiling in the global scene step by step. Model Han Hye-jin became the first Korean model to walk in a Gucci show in 2007 in Milan and the first Korean model to close out a show for Anna Sui in New York in 2008.

Kang Seung-hyun won Ford's Supermodel of the World title in 2008, a recognition that was never before given to an Asian model.

A rule that is widespread but not much talked about in the industry is that models establish their name by walking big shows and find other ways to make money. Many shoot commercials with fashion brands to make money. Popular models set this kind of schedule as soon as they are done with the fashion week events that take place in major fashion cities each year.

By KOREA JOONGANG DAILY

글로벌 패션 무대 위 한국 모델들

'다양성'과 '포용성'은 전세계적으로 중요 시되고 높이 평가되는 가치지만 세계 정상급의 패션 무대에서만큼은 좀 다르다.

유럽이나 북미 출신의 디자이너들과 백인 모델이 주를 이루는 세계 주요 디자이너 컬렉션은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의 4개 패션 도시에서 열린다. 다수의 흑인과 아시아계 모델들은 단 몇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혹한 패션업계에서 한국 모델들이 톱 패션 브랜드의 런웨이에 서며 자신과 한국 모델 모두를 위한 길을 닦아 나가고 있다. 최근 뉴욕과 런던에서 열린 패션위크에는 여러 명의 한국 모델이 가장 핫하다는 브랜드의 디자인을 입고 런

웨이에 등장했다.

한국 모델들은 특히 지난 시즌 이후 가장 많이 회자됐다. 지난 3월 파리에서 열린 샤넬 가을-겨울 패션쇼에는 세 명의 한국 모델 신현지, 최소라, 수주(박수주)가 런웨이에 섰다. 쇼에 섰다는 사실 자체로 패션계에서 영향력을 인정받는 샤넬 쇼에는 총 94명의 모델이 출연했는데, 이 중에 한국 모델 세 명, 중국 모델 세 명, 일본 모델 한 명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칼 라거펠트와 작업을 진행한 신현지는 '복잡한 동선에 신경 쓰느라 긴장할 겨를도 없었다'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다'고 전했다.

국내 모델 에이전시는 해외 에이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내 에이전트들은 캐스팅 디렉터를 한국으로 초청해 왔고, 이들은 한국 패션계를 직접 보고 보석 같은 인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국 모델의 해외 진출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2000년대 초 장운주와 송경아가 해외 무대에서 활동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여러 한국 모델이 국제무대에서 하나둘씩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한혜진은 밀라노에서 열린 2007년 구찌 패션쇼에 선 최초의 한국 모델이 됐고, 2008년 뉴욕에서 열린 안나수이 쇼에서는 한국 모델 최초로 피날레 무대를 장식했다. 강승현은 2008년 '포드 슈퍼모

델 오브 더 월드'에서 아시아 모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패션업계에는 다들 알고 있지만 언급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다. 모델들이 큰 쇼에서 이름을 알리고 돈은 다른 방법으로 번다는 것이다. 많은 모델이 패션 브랜드 광고를 찍는데, 인기 모델들은 해마다 주요 패션 도시에서 열리는 패션위크가 끝나자마자 광고 촬영 스케줄을 잡는다.

Key expressions

pave the way 길을 열다
glass ceiling 유리 천장
commercial (텔레비전, 라디오의) 광고

Forex reserves hit another high

Weaker dollar helps nation mark its second consecutive record

Oct 7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hit an all-time high in September on improved returns from investments in foreign assets and a relatively weak dollar that bumped up the



value of other foreign currency holdings including yen and euro.

The nation's foreign reserves reached \$377.8 billion, up nearly \$2.3 billion from the previous month, the Bank of Korea said on Thursday.

The latest reading marks a winning streak for two consecutive months, following the previous month that saw a then-record high of \$375.4 billion.

"The foreign reserve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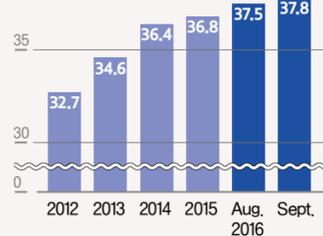
reached new highs for two straight months as foreign assets delivered improved returns," said Kim Chung-hwa, a senior economist at the BOK. "Of the foreign assets, we sold some bond holdings before maturity, which delivered yields," Kim said.

The economist also said a weaker dollar contributed to the nominal value increase.

"The dollar also depreciated [against other foreign currencies] due

Korea's surging foreign exchange reserves

Unit: billion dollars



Source: Bank of Korea

to anticipation for a rate hike by the U.S. Fed. That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nominal value of other major currencies that we hold," he said.

By KOREA JOONGANG DAILY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Which one do you prefer and why?

I prefer cooking myself due to a couple of reasons. Although I am not a very skilled cook to tell the truth, I enjoy cooking itself. When I have some spare time, I occasionally like to try cooking exotic meals as an experiment. Also, I think there's nothing better than cooking which allows me to relieve any stress I have. When I'm nearing the end of the day, I have a lot of stress due to work. However, the snacks I make not only give me energy, but they allow me to relieve my stress for a moment. On the other hand, deciding what to order at a restaurant makes me stressed and it is hard for me to select something on the menu and it is more expensive than cooking at home. That is why I like to cook dishes whenever I have some spare time.

Opinion Question 유형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playing games alone and playing games with others. Which do you prefer and why do you prefer thi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playing games alone and playing games with other people is the social interaction. When you play a game alone, you are mostly playing against the computer program. It works great when you are trying to achieve personal goals. On the other hand, playing with others provides a more social experience in that you can play together as a team or against each other. My personal preference is to play with friends. There is a game called "Rock Band," a music game where players play a song using fake instruments. None of us are actually any good at playing real musical instruments but we love getting together and playing. When playing as a whole group, it doesn't matter who wins or loses. We just enjoy each other's company!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SHINee's back: new album tops global charts

Oct 7



Boy band SHINee took the top spot on multiple iTunes music charts in a number of countries after the release of their latest album "1 of 1" on Wednesday.

The group hit number one in a total of seven nations, including Thailand, Singapore, Indonesia and Chile. The boy band also debuted at the top of the domestic album charts, which included the Hanteo Chart, Synnara Records, Kyobo Book and Hottracks.

The album was produced by internationally renowned creative teams including The Underdogs, Stereotypes, LDN Noise, and SM Entertainment's own Kenzie. The lyrics of many of the songs on the album were written in part by the members themselves, and the project showcases their musical tastes.

The boy band returned with their first live performance of their latest single on Oct. 6 through the Mnet music program "M Countdown." They will appear tonight on KBS's "Music Bank," and are expected to extensively promote their new record.

By KOREA JOONGANG DAILY



1 지난달 27일에 열린 '2016 현대건설 기술대전'에서 정수현 사장이 전시 부스를 돌며 수상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 '2016 현대건설 기술대전' 영광의 얼굴들. 3 행사장에는 건설기술 관련 체험 장소도 마련돼 참석자의 관심을 끌었다.

R&D 혁신 스토리 2016 현대건설 기술대전 스케치 첨단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제안하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현대건설 기술대전이 150여 건의 출품 기술이 접전을 펼친 가운데 수상작을 배출했다. 그 어느 때보다 실용적이고 수준 높은 기술이 많이 발굴됐다는 평가를 받은 시상식 현장을 <사보신문>이 찾았다. 글=이영주 / 사진=이슬기

기술에서 답을 찾다

"원천기술은 다양한 융·복합으로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전통적인 기존 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는 혼돈의 시대에 건설산업이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2016 현대건설 기술대전' 환영사를 통해 김정철 부사장이 강조한 것처럼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 선진 건설사들은 첨단기술 확보에 절치부심하며 국가 차원에서 첨단 건설시스템 구축에 나선 사례도 다반사다. 우리 회사 역시 시공 위주의 수주에서 벗어나 설계·운영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R&D 사업에 꾸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시행 중인 기술공모전 '현대건설 기술대전'도 이런 우리 회사의 남다른 경영철학을 담아 9년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 모색의장
지난 9월 27일 서울 양재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진행된 '현대건설 기술대전' 시상식에는 정수현 사장을 비롯해 우리 회사 임직원, 건설업계 관계자, 대학(원)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토목·건축·플랜트·환경 분야에서 출품된 150여 건의 기술 중 총 12건의 기술에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으며, 수상 기업에는 우리 회사 협력업체 등록 및 공동 연구개발의 기회가 주어졌다. 대학(원)생에게는 입사지원 시 가점도 부여됐다.

올해 기술대전의 대상과 금상은 모두 기업 부문에서 나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창덕 교수가 "예년에 비해 기업 부문의 출품작 수준이 높았으며, 실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이 많아 놀라웠다"고 심사 소감을 피력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빛나 대회를 빛냈다. 이는 올해부터 협력사까지 응모 자격을 확대하고 R&D 공동연구와 특허 지원을 확대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올해 시상식은 기술 프레젠테이션 외

에도 수상자 출신의 입사자가 직접 말하는 '현대건설 근무소감'이나 공동연구로 특허 출원이 가능했던 협력사에게 소개해 협력과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2014년 기술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후 16사번으로 입사한 정승지 사원은 "응모 당시 동료들과 경험했던 도전 정신과 추진력이 나라기움 여의도빌딩 현장 근무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보다 많은 대학생이 과감한 실험정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입사 기회도 얻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술대전 출품을 계기로 우리 회사와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게 된 ㈜이비엔리더의 남동균 대표는 "기술대전의 인연으로 공동특허 4건을 비롯해 건설신기술 인증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공동연구 및 현장 적용 기회를 준 현대건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건설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5개월간 접수된 150여 건의 출품작들은 세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가려졌다. 연구개발본부 및 사업본

부 관련 분야 실무진들이 1:2차 심사를 통해 12개의 본선 진출작을 추려냈고, 심사위원들은 철저한 블라인드 프레젠테이션으로 최종 심사에 임했다. 김창덕 심사위원장은 "나중에 결과를 비교해보니 현대건설 직원 심사와 유사해 놀랐다"며 "임직원이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학생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년 우수한 기술이 출품되는 것 같다"며 기술대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갤러리 내 전시 부스가 마련돼 출품자들이 직접 기술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수현 사장은 전시장을 세심히 둘러보며 기술협력에 대한 추가 방안을 질문하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연구개발본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술대전이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국내 건설사 유일의 기술 공모전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과 경쟁력을 갖춘 협력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발전을 위한 공생 의지가 돋보인 대기업 모범사례"

MINI Interview

김창덕 교수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Q 이번 대회 심사 소감은?

우선 출품작 수준에 놀랐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건설은 연구 지원은 물론 특허도 출원해 주는 등 너무도 훌륭한 사례가 많다. 그 때문에 매년 출품작도 늘고 수준도 올라가는 것 같다. 저 역시 학교로 돌아가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제도를 알리고 출품 준비를 하라고 조언할 생각이다.

Q 건설기술 선진화를 위해 공모전 외에도 현대건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파트만 보더라도 이제는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의 집합체가 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고의 건설사라는 이름 외에도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배경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융·복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건설기술은 이제 공간 창조에서 벗어나 생활의 요소기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기술개발이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이런 기술공모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학생과 기업 외에도 주부나 일반인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아이디어 접근이 이뤄지면 좋겠다.

2016 현대건설 기술대전 영광의 얼굴들

대상 PF(Point Foundation) 공법
땅속 흙과 친환경 시멘트를 섞어 굳히는 기술로 연약 지반에 주입해 아파트 주차장, 공장 등 중/저층 구조물의 기초 지지력을 강화시키는 공법. 건물의 지반 침하를 제어하며, 기존 말뚝 시공에 비해 친환경적이다. 이 기술은 우리 회사 '힐스테이트 영통' 등에 실제 적용돼 공기 단축 및 공사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구조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2012년에도 기술대전에 응모해 동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쁩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대건설과 함께 기술을 발전시켜 토목 인프라나 플랜트 제반시설까지 적용을 확대해 보고 싶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외 진출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 송기용 대표
이엑스티(주)



금상 사인장균열 제어 공법
온도 및 습도 변화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건물 창문 모서리에 발생하는 균열을 제어하는 기술. 창문 모서리에 곡면판을 설치해 변형력을 분산시켜 균열 발생을 제어하기 때문에 시공이 간단하며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하다.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 건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미관까지 고려해 주목 받았다.

"큰 상을 수상해 영광입니다. 저희 가람건축의 부설연구소에서는 이번 금상을 수상한 기술 외에도 정밀시공이 가능한 최적의 건설자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화된 우수 자재들이 현대건설의 현장에도 적용돼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 임병균 연구소장
(주)중앙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은상 고효율 저비용 세척제 개발
3가철(Fe3+)을 활용해 증금속으로 오염된 해양준설 퇴적도를 정화하는 세척제를 개발한 기술. 기존의 무기산 세척제보다 친환경적이며 황화물을 효과적으로 분리해 오염된 토양을 효과적으로 정화한다. 또한 다양한 특징을 지닌 토양에 적용이 가능하고, 2차 처리 공정을 최소화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가철(Fe3+)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던 중 인터넷 서치를 통해 우연히 기술대전을 알게 돼 응모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같은 해외에서도 오염토양 세척 분야 진출을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의 연구가 실제로 현대건설의 현장에 적용된다면 무척 기쁠 것 같습니다."

> 유중찬, 전필용, 박승중
전북대학교



은상 애플리케이션(App) 프로토타입 개발
공동주택의 브랜드 이미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으로 민원이나 점검사항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촬영해 민원접수 및 시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민원 처리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자 역시 점검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제적으로 시설관리가 가능하다.

"다른 공모전과 다르게 현장 적용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제안 기술은 뉴스테이나 임대사업 등 변화하는 주택시장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하며, 정수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거서비스 전반으로까지 확대토록 이 기술을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 정진호, 김승권, 염태진
서울시립대학교



해외기업경영트렌드 ⑭ 존슨앤드존슨 *Johnson & Johnson*

바이오 전성시대, 130년 장수 제약사의 혁신 비결



존슨앤드존슨 바이오 벤처육성센터 제이랩스(JLABS) 내부. 이곳은 R&D 기술 개발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첫째 책임은 의사, 간호사, 환자 및 환자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신조(Our Credo)’ 첫머리 글로 존슨앤드존슨은 리경영의 신조가 됐다.

존슨앤드존슨의 히스토리

- 1886**
미국 뉴저지주에 회사 설립
- 1888**
세계 최초 구급상자 개발
- 1897**
여성용 패드 발명 및 대량생산
- 1921**
환자가 직접 붙이는 드레싱 밴드 개발
- 1943**
로버트 우드 존슨, 윤리경영의 근간인 ‘우리의 신조’ 제정
- 1954**
아기 전용 제품 출시
- 1959**
타이레놀 첫선, 최초의 처방 진통제
- 1987**
1회용 콘택트렌즈 ‘아큐브’ 세계 최초 출시
- 2013**
바이오 벤처 육성센터 ‘제이랩스’ 오픈

올해 130주년을 맞이한 세계 1위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은 바이오산업의 전설로 통한다. 진통제 판매율 만년 1위 타이레놀부터 매년 수조원씩 팔리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 에볼라 백신 등 블록버스터 항체바이오 신약들을 개발하며 세계 최장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잇따른 리콜 사태와 관련해 존슨앤드존슨의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대응 능력이 재조명 받고 있다.
글=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사진=존슨앤드존슨 제공

리콜로 쓴 타이레놀 신화

경영 현장에서 말 한마디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사과 한마디의 효력은 크다. 납 성분이 검출된 장난감으로 위기에 처한 마텔(2007년), 직원이 택배 상자를 내던지는 ‘패대기 동영상’으로 곤혹을 치른 페덱스(2011년), 타이레놀 독극물 사태를 겪은 존슨앤드존슨(1982년)의 공통점은 바로 즉각적인 사과로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타이레놀 스캔들’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34년 전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부 캡슐형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주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시카고 전역에 배포된 제품을 수거할 것을 존슨앤드존슨에 권고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타이레놀의 생산과 홍보를 중단하고 미국 전역에서 시판되고 있던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핫라인을 설치해 이미 판매된 타이레놀 캡슐은 알약으로 교환해 주는 등 언론과 소비자의 문의에도 신속하게 대처했다. 1주일도 지나지 않아 3100만 명의 타이

레놀을 수거했는데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리콜 사례로 기록됐다. 막대한 손실을 무릅쓴 적극적인 후속조치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었던 이 사건은 ‘위기관리의 바이블’로 평가받고 있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존슨앤드존슨의 기업문화를 상징하는 ‘우리의 신조(Our Credo)’ 선언문에서 시작됐다. 회사의 설립자 존슨 3형제 중 한 명이자 1932년부터 63년까지 회장직을 맡았던 ‘로버트 우드 존슨(Robert Wood Johnson)이 43년에 직접 작성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맞닿아 있는 경영철학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뿌리내렸다.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시스템(Health Care System)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소아센터(Pediatric Institute) 설립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 등이 대표적이다.

‘최초’의 역사를 쓰다

우리에게 익숙한 헬스케어 제품 중에는 존슨앤드존슨의 상품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1888년 병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작업하는 철도 근로자를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구급상자(emergency kit)부터 1894년 출산용품(maternity kit), 아이 전용 케어 상품인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 판매를 시작했다. 1921년에는 작은 상처 부위에 사용자가 직접 드레싱할 수 있는 밴드 에이드(Brand Adhesive Bandages)를 발명했다. 이외에도 일회용 콘택트 렌즈(1987년),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1993년), 관상동맥 스텐트(1994년), 항균 봉합사(2005년)에 이르기까지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제품의 역사를 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꾸준히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며 성장가도를 달려온 존슨앤드존슨은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250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섰다. 전체 매출액의 49%(700억 달러) 정도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올리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은 세계 경제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를 구성하는 30대 우량기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의 Standard and Poors(S&P) 주가지수의 구성 종목이기도 하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라

존슨앤드존슨의 연구개발(R&D)은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R&D 투자 규모는 총 90억 달러로, 이는 매출액 대비 약 13%에 이른다.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다. R&D의 핵심 원천은 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제이랩스(JLABS)에서 얻는다.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보스턴,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 등에 혁신센터를 설치

하고 R&D에 관심이 있는 대학·과학자·사업가와 공동으로 신약개발과 신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곳에선 기술 개발 과정에 있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일정 사용료만 내면 사무실부터 연구실, 기자재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연구자가 아이디어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초기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기까지의 절차를 과감히 축소해 개발비를 절감하는 등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제이랩스 센터 설립과 관련해 멜린다 리히터(Melinda Richter) 제이랩스 총괄대표가 지난달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방형 혁신구조(OI, Open Innovation)가 내부의 자원만을 활용한 R&D에 비해 경제적 부담과 연구 실패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제약, 각종 진단 및 수술기구를 생산하는 의료 부문 외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글과 손잡고 수술용 로봇 부문에 진출했다. 수술용 로봇은 환자의 몸 중 아주 작은 부위만 절개한 후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치료하는 기술로 환자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의료계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애벗의 백내장 라식 수술 및 디바이스 사업부인 Abbott Medical Optics(AMO)를 약 4조 8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존슨앤드존슨은 기존의 콘택트렌즈 사업과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혁신적 메디컬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한편 우량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등 신사업 분야에서 활발한 진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의 오늘(2015년 기준)

- 총매출액 700억 7400만 달러
- 총자산액 1334억 1100만 달러
- 영업이익률 183억 7000만 달러(26.21%)
- 종업원 수 12만 7100명

자료: S&P Capital IQ, Brand Finance Global 500
EBIT: 세전영업이익,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CEO 알렉스 고스키
(Alex Gorsky)



1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우스비치 신축 공사 전경. 2 도넛 공법을 적용해 시공 중인 모습. 3 거대 캐노피와 분수가 돋보이는 사우스비치 호텔 입구. 4 필립 스타크 디자인한 호텔 로비.

Wave-like South Beach becomes a landmark in Singapore

New landmark in the Beach Road
The South Beach project invested jointly by City Developments Limited, Singapore's property pioneer, and IOI Group, one of Malaysia's largest property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mpanies, is to build ten buildings including a 36-storey office building, a 45-storey designer hotel and residential complex and retail spaces, repair and restore a cultural heritage building, and connect the huge multipurpose complex to the existing MRT station.

The project was in the limelight since it was expected to cost over 600 million dollars as the biggest construction project offered by Singapore as of 2011. In August 2011, Hyundai E&C won the project after a stiff competition with both local and global competitors.

South Beach's eco-friendly features
The client wanted to construct the South Beach in an environmental friendly way so that the new develop-

ment can coexist with the environment. To this end, it was designed by Foster and Partners, a British international studio for architecture and integrated design.

The overall design concept is "huge wave." The most eye-catching feature in the South Beach is a state-of-the-art canopy covering about 70 percent of lower levels of the historic development. The 280-meter long canopy creates a scene like golden waves rolling. It serves as an environmental

Cultural heritage restored by Hyundai E&C.



잔잔한 물결 모양의 캐노피와 건물 외관이 돋보이는 사우스비치 프로젝트는 주위 환경과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건물이다.

역경을 이겨내기 위한 끈기와 노력

핵심 공정인 캐노피 시공 역시 난제였다. 오피스동 준공 당시 BCA의 준공검사 조건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 철거됐기 때문, 타워크레인 없이 루버(louwer)를 들어올리기 위해 건물 하부에 가설물을 설치·해체하

자연친화적 건물 외관이 돋보이는 사우스비치

일본의 대표 건설사인 시미즈를 비롯해 삼성물산, 쌍용건설 등 국내 유수의 건설사가 참여했고, 2011년 8월 우리 회사가 지열한 경평을 뚫고 공사를 시작했다.

선택시티의 뒤를 잇는 새로운 랜드마크

“South Beach is a shining star in the civic district”. 서울과 비슷한 크기의 싱가포르의 자연과 도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린시티다. 도시 곳곳에 풍부한 녹지를 갖춘 이곳에 자연을 담은 건축물이 우리의 기술력으로 들어섰다.

파도 닮은 ‘사우스비치’ 도심 속 랜드마크로 우뚝 서다



캐노피 시공 모습.

Tenacious and hardworking
The construction of the canopy, the symbol of the South Beach, was a daunting challenge. We repeatedly installed and disassembled the scaffolding structure in order to lift heavy louvers without using a crane. As the construction site is located in a wide land along the seaside, it took quite a long time for us to do the groundwork. About 200 trucks of mud were pumped out on a daily basis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The Singapore's authorities are well known for their thorough supervision over construction process and strict examination regarding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Nonetheless, the South Beach project went through 10 inspections and received awards at the Singapore Good Design Mark 2016, the Asia Pacific Property Awards 2016 and th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 Architectural Heritage Awards 2016.

역경을 이겨내기 위한 끈기와 노력

특히 기울어진 구조물을 ‘어떻게 쌓아올리느냐’가 가장 큰 과제였다. 현장은 콘크리트 벽 안쪽으로 강연선(여러 가닥의 강철선을 꼬아서 만든 줄) 케이블을 설치하고 이를 담겨 구조물을 지탱하는 ‘포스트 텐션(Post Tension)’ 공법을 도입했다. 고강도 콘크리트 벽체 내부에 수천 개의 케이블을 설치한 뒤 각 건물 지면에 설치된 케이블을 통해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방식이다. 사우스비치 현장은 3개 층이 시공될 때마다 케이블을 잡아당기는 힘을 조금씩 조절해 공법을 성공적으로 현장에 적용했다.

“South Beach is a shining star in the civic district”. 서울과 비슷한 크기의 싱가포르의 자연과 도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린시티다. 도시 곳곳에 풍부한 녹지를 갖춘 이곳에 자연을 담은 건축물이 우리의 기술력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파도를 형상화한 이 건물은 사우스비치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글=이희정

터’ 역할을 한다. 또한 건물도 캐노피를 따라 흐르는 빗물은 지하탱크에 모아 재활용하거나 일부 캐노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캐노피는 두 개의 타워를 감싸 햇빛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공조부하(실내온도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열량 소비)를 줄여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이다.

가를 수차례 반복했다. 또한 현장 부지가 과거 바닷가 끝이었던 탓에 이를 탄탄히 다지기 위한 공사도 꽤 오랫동안 진행됐다. 공사 초기 하루에 트럭 200대 분량의 진흙을 바다로 퍼날랐다. 그 밖에도 건축공사에서는 적용사례를 찾기 힘든 ‘도넛 공법’을 적용했다. 토목공사의 ‘가설물막이’ 공법을 응용해 가설 스트럿 없이 16m 이상 굴착할 수 있는 이 신기술을 활용해 현장은 공기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왼쪽부터 강성욱 과장(공사), 류병익 부장대우(공무), 김주환 현장소장, Yee Ai Chun 과장(QS Manager), 김종태 부장대우(관리).

“고진감래(苦盡甘來)의 결실을 기다립니다”

수차례의 위기를 딛고 준공을 향해 달려온 싱가포르 사우스비치 신축공사 현장. 힘들 때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준공까지 달려온 현장의 베테랑 직원 5인방을 만나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주환 현장소장(이하 김 소장) 1994년도에 입사해 97년부터 말레이시아 전자 공장, 싱가포르 지하철, 홍콩 콘도, 중국 하이니스, 아시아 스퀘어 타워1·2 등 해외 현장에서만 20여 년간 근무해 왔습니다.

Q 역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김 소장 싱가포르 환경청(NEA)에서 갑작스럽게 현장 방문 이모저모 검사하다가 모기 유충을 찾아냈어요. 싱가포르가 당시 열기때문에 예민한 시기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공사 재개를 위해 전 직원들이 현장 곳곳에 모기약을 뿌리고 다닌 기억이 나네요(웃음). 지금도 인근 현장에 안전교차점점을 가게 되면 항상 NEA 점검과 모기 발생 지역의 유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 하곤 합니다.

Q 마지막 건설의 준공필증 인증만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소장 마지막 MRT 준공 때는 들뜬 마음으로 진행되는 고소작업이 걱정돼 자다가도 현장에 나와 봤어요. 우리 현장은 프로젝트의 특성상 순차적으로 준공심사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10번의 준공을 거치면서 주말도 반납하고 밤낮없이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 부장 지난 시간을 돌아켜 보면 가슴이 뭉클하네요.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비록 여러 이유로 회사에는 커다란 부담을 안긴 현장이지만,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와 실패 사례를 공유해 타 현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 건설의 준공필증 인증만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소장 그동안 현장을 거쳐 간 직원들이 500명 정도 됩니다. 어려운 현장 여건 때문에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직원들의 복지나 혜택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Ai Chun 과장 The most anticipated moment in a project is its completion. It was the project team persistent effort to bring the project completion. In these four years, I have gained precious experience and much exposure from the project. I als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people of various background, learned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develop bonding. 김 소장 수차례의 준공검사와 돌관공사를 하며 직원들 모두 심신이 지쳐 있더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준공까지 함께 준 우리 직원들과 분사, 지사, 유관 부서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Q 외국인 직원들과는 어떻게 화합했는지 궁금합니다.
김 부장 우리 현장을 스쳐간 외국인 직원만 해도 300명이 넘어요. 외국인 직원들과의 화합을 위해 BBQ파티, 연말 송년회 행사, 매일 신규 직원 환영회 등 직원들과 스킨십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어요.

Q 외국인 직원들과는 어떻게 화합했는지 궁금합니다.
김 소장 한국의 명절 기간에도 근무하는 해외 현장 특성상 조촐히 모여 송편, 떡볶이를 함께 먹으며 정을 쌓았어요. 외포가 당시 열기때문에 예민한 시기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공사 재개를 위해 전 직원들이 현장 곳곳에 모기약을 뿌리고 다닌 기억이 나네요(웃음). 지금도 인근 현장에 안전교차점점을 가게 되면 항상 NEA 점검과 모기 발생 지역의 유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 하곤 합니다.

Q 마지막 건설의 준공필증 인증만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소장 그동안 현장을 거쳐 간 직원들이 500명 정도 됩니다. 어려운 현장 여건 때문에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직원들의 복지나 혜택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Ai Chun 과장 The most anticipated moment in a project is its completion. It was the project team persistent effort to bring the project completion. In these four years, I have gained precious experience and much exposure from the project. I als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people of various background, learned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develop bonding.

Q 마지막 건설의 준공필증 인증만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소장 그동안 현장을 거쳐 간 직원들이 500명 정도 됩니다. 어려운 현장 여건 때문에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직원들의 복지나 혜택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Ai Chun 과장 The most anticipated moment in a project is its completion. It was the project team persistent effort to bring the project completion. In these four years, I have gained precious experience and much exposure from the project. I als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people of various background, learned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develop bonding.





▶ 만나고 싶었습니다 소설가 장강명

“나는 월급 사실주의 작가”

읽을수록 궁금한 작가, 장강명의 첫 에세이는 정체성이 모호하다. 주장도, 교훈도, 충고도 없는데 ‘아차’ 싶은 공감의 대목이 곳곳에 등장한다. 작가는 평소 ‘가격 대비 성능비’를 따지는 사람이다. 자신이 읽은 책을 ‘일독 권유 지수’로 별점을 매긴다. 독자들도 한번 매겨보자. 누구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지.
자료 제공=채널에스

Q 첫 에세이인데요. 신혼여행을 소재로 쓰실 줄은 몰랐어요.

원고는 꽤 일찍 썼는데, 책이 될 만한 이야기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소설을 쓰다 지칠 때는 에세이를 썼어요. 제가 원래 글쓰는 걸 좋아하고 일기도 1년에 책 1권 분량씩 쓰거든요. 소설을 쓰다 보면 피곤한 게 있는데 지난해에 『땃글부대』를 쓸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책 내용 때문인지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제가 그렇게까지 꼬인 사람은 아닌데 정신건강이 막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스스로 힐링하려고 쓴 책이에요. 아내한테 신혼여행을 소재로 에세이를 써볼까 한다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라고 묻더라고요. 저도 의문이었어요. 3박5일 신혼여행 이야기가 책이 될지. 하지만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욕심 없이 썼어요. 소설 쓰다 짜증 날 때 에세이 20장 정도 쓰고, 다시 소설 쓰고 그랬어요.



장강명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전업작가. 하루 8시간 글쓰기, 4개 문학상 석권. 지난해 소설가 장강명에게 붙은 수식어는 독보적이었다. 『표백』으로 제16회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하며 데뷔한 그는 『한국이 싫어서』 『땃글부대』 등 지난해에만 3권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올 8월에 펴낸 『5년 만에 신혼여행』은 그가 처음으로 쓴 에세이다.

Q 아내와 부모를 두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책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약간 후회합니다. 사전 연재를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책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니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하기까지 부모님과도 상관이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결혼식을 안 하고 명절 때 잘 찾아뵙지 않는 게 잘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죠.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크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가수 신혜철씨가 살아계실 때 그분의 말에 동조한 적은 많지만 용감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좋아했어요. 사회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사실 제가 결혼식을 안 한 게 한국 사회에서는 튀어 보이지만 외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죠.

Q 직장생활을 꽤 오래 하셨잖아요. 신문사 기자를 10년간 하셨고요. 이런 이력이 작가 생활에도 영향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세랑, 정아은, 임성순, 심재천, 이혁진 작가와 한 무음으로 불려도 좋겠다고요. 이 작가들은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비교적 장편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30, 40대 작가군이에요. 쓰는 글도 현실적이고 에티튜드도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름을 붙인다면 ‘월급 사실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Q 모두 직장생활을 한 작가들이시죠?

다 월급을 받아 생활했던 작가들이고, 꼭 ‘문학 덕후’를 지향하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이런 작가들을 뽑아놓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지보다는 서사를 중시하고 장르소설적인 기법을 아무 거부감 없이 쓰는 작가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후장 사실주의자’라는 표현을 듣고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월급 사실주의자’도 그렇게 묶어서 불러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Q 지난해부터인가요? 트위터와 페이스북 북에 ‘일독 권유 지수’ 책 리뷰를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5줄 정도 매우 간명

한 리뷰인데 독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제 작품을 홍보하는 채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SNS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워낙 심심하게 사는 사람이고, 딱히 올릴 내용도 없어서 읽은 책에 대해 한두 줄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 이 일도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거창하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책이 있구나’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글이라고 할까요? SNS에서 책 리뷰를 볼 때 책이 아니라 ‘책을 읽은 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글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저는 책 자체에 관해 이야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에세이에서 “HJ나 나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실용주의자”라고 했어요. 언제나 가격 대비 가성비를 따진다고요.

맞죠. 하지만 동시에 맹렬하게 가치를 찾는 사람이에요. 경제적 효용성을 추구하지만 목적이 돈이 아닐 때도 있고, 가치를 찾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의 ‘성능’은 수치로 환산되는 경제적 효용을 포함한, 어떤 가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Q 실용주의자가 보기에 가장 한심스러운 유형은 어떤 경우인가요?

실용주의자가 되려면 자기가 원하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걸 알려면 성숙해야 하고요. 저도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너무 심하게 모르면 문제가 생기죠. 남들이 원하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덩달아 원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게 기괴한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남들이 때릴 때 같이 가서 때리는 조리돌림 같은 게 지금 사회에서는 넘쳐나잖아요. 냉정히 말해 왜 때리는가? 그 사람을 때려서 손톱만큼의 카타르시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얻는 쾌감이 별건가요? 그럴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죠.

Q “친절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허세만 잔뜩 부렸다”는 문장이 기억에 남아요. 기자로 살았을 때의 이야기인가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실용주의자인 동시에 맹렬하게 가치를 찾는 사람... 가치를 찾지 못하면 공허함 느껴

기자 초년생 때도 포함되지만 대학생, 고등학생 때도 착한 아이들을 되게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착하면 만만해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저는 소설가로서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전생에 뭘 잘했나 싶은 생각도 하고요. 흐름을 잘 탔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Q 통장에 매달 인세가 찍힐 텐데요. 인세가 좀 더 찍혔으면 싶은 책이 있나요?

지난해에 제 소설 『한국이 싫어서』가 꽤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팔린 부수는 3만 부가 안 됩니다. 이 소설이 이 정도면 다른 작품은 어떻게 싶어요. 저는 책을 좀 빨리 쓰는 편이에요. 보통 작가들이 1년에 한 편 정도를 쓴다고 할 때, 그 책이 초판 1쇄가 안 팔린다면 이 시장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출판은 강연을 거들 뿐’이라는 말까지 하던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Q 인생의 목표 중에 첫 번째가 ‘행복한 결혼생활’, 두 번째가 ‘소설가로서의 성공’이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가 있다면요?

글쎄요. 제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고, 행동의 많은 부분에서 세속적 성공을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려면 자기가 사는 공동체에 어느 정도는 헌신하고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봤자 제가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많이 열심히 할 것 같진 않지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항상 관심을 놓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몰랐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위선자 같아서 더 위

약적으로 ‘이 사회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위약을 좀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게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도 어떤 작은 선량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착하게 사는 일이 내 인생에도움이 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굳이 위약을 부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예요.

Q “소설가로 성공할 수 있을까?”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나요?

신혼여행 갔을 때 비하면 훨씬 안 하죠. 성공까진 아니지만 계속 소설가로 살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수림문학상을 받기 전, 그러니까 신혼여행 석 달 전이었죠? 그때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불쑥 많이 깼어요. 내가 인생에 헛발질한 게 아닐까 싶었죠. 상을 탄 후로도 불안감이 크게 가시진 않았어요. 다만 ‘올해는 넘기겠네, 내년까진 글을 써도 되겠네’ 정도였죠. 변한 게 있다면 ‘소설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Q 독자들에게 『5년 만에 신혼여행』이 어떻게 읽히길 바라나요?

돌아다니 소리를 듣는 게 마음속에서 늘 겁이 나는 분들이 보면 좋겠어요. 남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다고 할까 봐 머뭇거리지는 분들에게 “이 정도까지는 이상하다는 소리 안 들어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한 사람이 좌충우돌한 이야기”입니다. 딱히 교훈 같은 건 없고요. 설령 설령 읽으면 재미있을까 싶습니다.



계동산책 Misfits

맛있는 커피가 있는 편안한 쉼터

커피전문점 미스핏츠

주소 서울시 중로구 계동72길
영업시간 11:00~19:00
문의 02-747-4293



1 밤이 되면 더 돋보이는 건물 외관. 2 야외 테라스 전경. 3 스트레스 쌓일 때 먹으면 최고! 누텔라와 마시멜로우로 맛을 낸 S'MORES DIP. 4 개성 있는 미스핏츠 간판. 5 미스핏츠의 캐릭터가 그려진 컵들.

뉴 두 개가 전부, 계동의 카페들이 각양각색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행보다. 기타 메뉴를 절제한 대신 커피에 힘을 줬다. 모든 커피는 세계 로스팅 챔피언십 준우승이자 한국 로스팅 챔피언십 우승자가 운영하는 로스터리 전문점(Signature Roasters)의 원두를 사용한다. 아메리카노는 견과류의 풍성한 단맛과 다크

초콜릿의 특이한 Double-B와 단맛과 신맛이 균형 잡힌 TEXTURE 중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울겨울에는 미스핏츠만의 시그니처 커피 메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겠다.



계동 본사에서 중앙고등학교로 가는 길은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꽤 인기 있는 산책로다. 맛있는 음식점과 예쁜 카페, 개성 넘치는 공방이 걷는 재미를 더한다. 9월 2일 문을 연 커피전문점 미스핏츠(Misfits)는 이 길의 중간에 있다. 최근 오픈한 곳답게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건물 외벽 마감재로 개비온(Gabion)과 붉은 벽돌을 사용해 자연스러우면서도 멋스럽다. 내부는 바·메인라운지·레인보룸·정원 등으로 나뉘는데, 공간마다 콘셉트를 달리했음에도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상호 미스핏츠는 『포라이들의 시대』라는 책의 원제목(The Misfit Economy)에서 따왔다. '기존의 관습이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이곳의 세계관을 옷이 담는다. 이는 메뉴 구성에서도 느낄 수 있다. 커피 외에는 병 음료, 홍차, 핫 초콜릿과 디저트 메

차세대 리더보드 칼럼

“우물쭈물하다 내이럴 줄 알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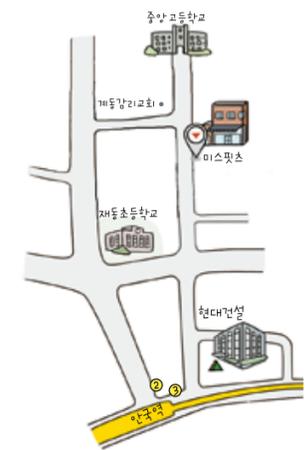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 묘비에 쓰인 글귀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 해 전 버킷리스트 작성이나 20~30대에 꼭 해야 할 일 같은 시리즈가 대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항상 후회하는 것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못한 일이나 하루라도 젊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다닌던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떠나는 사람, 미뤄왔던 공부를 다시 하는 사람을 보면 도전하는 그 삶이 멋지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다닌던 직장을 그만두라고 모험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히 가슴 속에 품었던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영어공부, 가족여행, 운동, 봉사~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차일피일 미뤄왔던 일들이 있다면 당장 생각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또한 '현대건설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 가장 늦은 때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가장 빠른 날이기도 합니다. 어 느덧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왔네요.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않는 2016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23기차세대 리더보드 / 전력기획실
최한주 대리



현이와건의 뉴비일기

9화 『동기사랑 나라사랑』

〈사보신문〉은 현대건설의 비전·기업문화 등을 담은 웹툰을 오는 11월까지 연재합니다.

*뉴비(Newbie): 풋내기, 새로 온 사람, 어떤 직업에 대한 무경험자를 지칭하는 신조어.

다 비켜요!!!

비켜주세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기 모임날 이라구!!!

오랜만이다 애들아!!!!!!

건배~!!!

이렇게 동기를 다 모인 게 몇 달 만이야!

그래도 가끔 사내메신저에서 어제 본 것 같아~

카타르는 언제? 지날 만해?

지날 만하기 뿐이겠냐~

빠샤!!!!

요즘 몸 관리 좀 하고 있지~

현장에 엘스장, 탁구장까지 없는 게 없더라니까~

축구대회도 하고, 근육이 저절로 생겨~

그렇구나!

아까부터 운동 얘기만 하고 말이야~!!

일들은 잘하고 있는 거야?

나야 뭐~ 현장 체질인 거 알잖아~

신입이 무슨~

넌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있지? 거긴 어때?

멀리서들 왔으니 계산은 내가 한다!!

애기할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하나~

어이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술술 일어날까?

밤 새우지 뭐~!!

그렇게는 안 되지!!!

나대! 내가! 내가!

누구라도 좋으니 빨리 내고 가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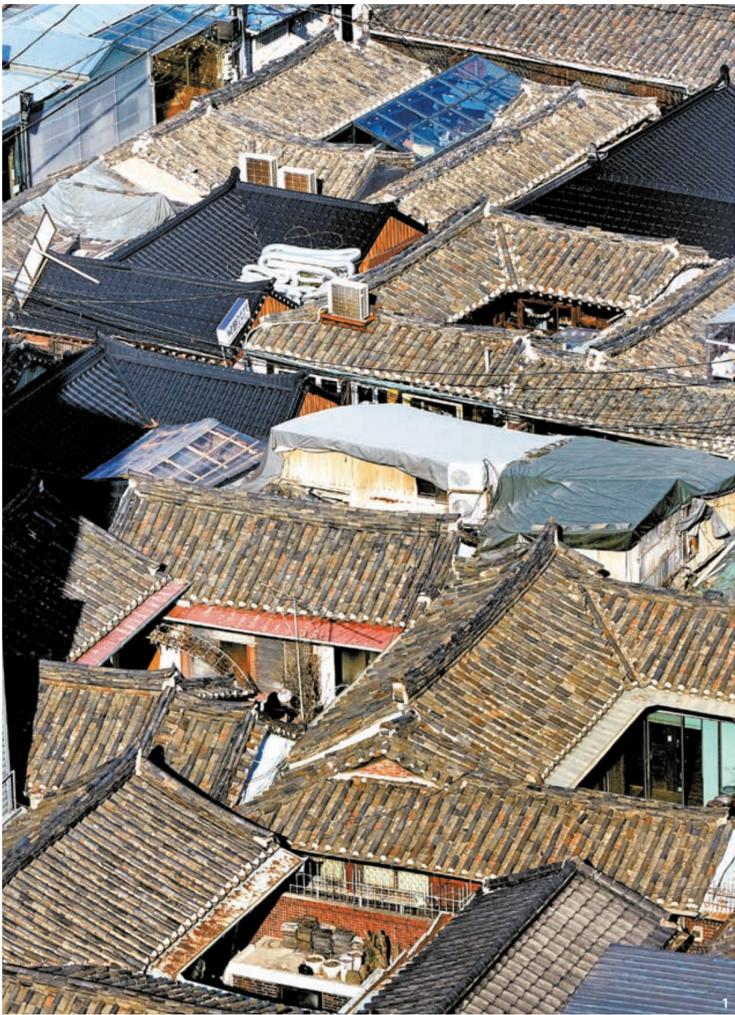
좀가... 너희들...

글/그림=웹툰작가 손하기

여행칼럼 서울 3대 전통거리 투어

전통+현대 익선동, 명소 변신 장충동, 문화 향기 한남동

가로수길, 경리단길, 홍대거리와 같이 서울에서 '핫하다'는 곳을 걷다 보면 유명 브랜드의 대형 매장이 즐비하다. 관광객으로 붐비며 예전의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도 사라졌다. 변해가는 거리 모습이 이상해졌다면 가을바람을 맞으며 서울 옛 명소를 산책을 떠나 보자. 종로3가 낙원악기상가 주변 익선동과 한남동·장충동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맛플레이스'로 다시 찾아왔다. 글=한진·라예진 <중앙일보> 기자 / 지도 일러스트=공연주 / 사진=프리랜서 장석준·조상희, 여성중앙·다뮤지엄, 각 업체 제공



1 서울 종로3가 낙원악기상가에서 내려다본 익선동 한옥마을 전경. 2 한옥을 개조한 카페·음식점 등이 들어선 익선동 골목길. 3 서울 한남동 다뮤지엄이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마을. 종로3가 낙원악기상가에서 3분 정도 걸으면 낡은 기와지붕이 늘어선 작은 골목이 나온다. '복촌'(삼청동)과 '서촌'(홍익·효자동)에 이어 서울 제3의 한옥마을로 꼽히는 이곳에 카페·공방이 들어서면서 주목 받고 있다. 인사동과 청계천, 청터골, 청경궁으로 둘러싸인 익선동은 서울의 중심지지만 낙후된 주거환경 탓에 200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10여 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부터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이 한옥을 개조해 카페와 복합 문화공간 등을 열면서 동네에 활기가 돈다.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다. **익선동 한옥마을 속 카페·공방** 오래된 한옥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익선동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면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한옥 처마 밑에선 동네 토박이 어른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바로 맞은편 한옥을 개조한 음식



전문 유행에 민감한 20대 젊은이들이 맛 집 '인증샷'을 찍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진진구(22·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씨는 "전통 한옥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익선동을 찾았다.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어 건축차원에서 처음 방문했다가 소박하고 이색적인 동네 매력에 빠져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러 자주 온다"고 말했다. 익선동 골목 초입에 들어서면 빵·맥주·수제맥주·수제맥 등을 판매하는 7개

의 가게가 함께 모인 '열두달'이 반긴다. 한옥 천장을 투명하게 개조해 고개를 들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왼쪽의 작은 골목으로 발길을 옮기면 '익두다방'과 마주하게 된다. 아트디렉터인 박지현씨와 박한이 강남다방 대표가 함께 만든 공간으로, 전통 한옥에서 현대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카페다. 계절마다 제철 재료로 만든 다양한 음료도 맛볼 수 있다. 골목에서 나와 다시 걷다 보면 반쯤 허물어진 담장 사이로 '거북이슈퍼'가 보인다. 맥주와 연탄불에 구운 오징어를 맛볼 수 있는 맥주집 겸 슈퍼마켓이다. 1940~80년대 옷과 그릇을 파는 '빈티지 보너'의 독특한 외관도 시선을 끈다. 전통적인 한옥 서가래와 반짝이는 분홍색 네온사인 조화를 이룬다. 이곳과 연결된 '수집'에선 40여 명의 작가가 직접 만든 한국적인 분위기의 그릇·가방·액세서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익선동 주변엔 불거리도 풍성하다. 북쪽으로는 청경궁과 윤현궁, 동쪽으로는 종도, 서쪽으로는 낙원악기상가와 인사동도 가깝다. 익선동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근 낙원악기상가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젊은이로 구성된 음악 동호회 활동을 비롯해 무료 공연과 영화 상영회 등이 자주 열린다.

장충동 태극당·국립극장 달바꿈 장충동 족발, 장충체육관 등으로 알려진 장충동 일대도 최근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빛 바랜 흰색 4층 건물이 눈에 띈다. 광복 이래 70년 세월을 뜻깊게 지켜온 빵집 '태극당'이다. 지난해

1월 6일 6호선 이태원역 끝자락과 한강진역 사이에 자리 잡은 현대카드 뮤지컬라이브러리도 빼놓을 수 없다. 텐테이بل에 LP판을 올려놓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LP판 1만여 장과 음악 서적 3000여 권을 갖춰 음악 마니아들에게 거의 성지로 통한다. 최정진(38·서울 이태원동)씨는 "구하기 어려운 음반부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들을 수 있어 바쁜 업무 중에 잠깐 쉬고 싶을 때 들린다"고 말했다. 길 건너엔 지난해 문을 연 음악문화공간 '스트라다디움'이 있다. 음악 감상과 함께 공연·쇼케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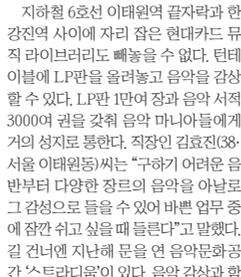
주변으로 흡입속 형태의 이색 매장도 카페가 즐비해 불거려,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코오롱FNC의 남성 패션브랜드 '시리즈코너' 매장은 화장품 브랜드 이슬과 카페가 함께 모여 있다. 제일 모직의 편집숍인 '비이커' 매장은 이태원과자점, 디자인편집숍 '디앤디파트먼트'에 로스팅 카페가 들어서 소품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12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옛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개관했다.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젊은 층의 발길도 늘었다. 3대째 가업을 이어온 신정철 태극당 전무는 "리모델링 전에는 연세 지긋한 단골 고객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로 붐빈다"고 말했다.

장충동에는 태극당처럼 새 옷으로 갈아입은 곳이 적지 않다. 수십 년간 한국 전통문화 예술의 산실 역할을 해 온 국립극장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다. 1563석 규모의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은 내년 9월께 개보수 공사를 거쳐 한국 무용·장구·국악 전용 극장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50년이 넘도록 자리를 지켜온 장충체육관은 지난해 1월 리모델링을 통해 체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재개관했다. 실내스포츠경기장과 뮤지컬·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신식 경기장으로 다시 지었다"고 설명했다.

한남동 미술관, LP 음악감상실 이태원 경리단길이 뜨면서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던 한남동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음악과 미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부터다. 지난해 말 한남동에 문을 연 대립미술관의 다뮤지엄이 대표적이다. 한남동 한자 옆에 자리 잡은 다뮤지엄은 감각 있는 전시와 색감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요즘 20대에게 '핫'한 공간으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오픈한 '헤더웍 스튜디오' 전시회 관람객 수는 8만여 명에 이른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끝자락과 한강진역 사이에 자리 잡은 현대카드 뮤지컬라이브러리도 빼놓을 수 없다. 텐테이بل에 LP판을 올려놓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LP판 1만여 장과 음악 서적 3000여 권을 갖춰 음악 마니아들에게 거의 성지로 통한다. 최정진(38·서울 이태원동)씨는 "구하기 어려운 음반부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들을 수 있어 바쁜 업무 중에 잠깐 쉬고 싶을 때 들린다"고 말했다. 길 건너엔 지난해 문을 연 음악문화공간 '스트라다디움'이 있다. 음악 감상과 함께 공연·쇼케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주변으로 흡입속 형태의 이색 매장도 카페가 즐비해 불거려,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코오롱FNC의 남성 패션브랜드 '시리즈코너' 매장은 화장품 브랜드 이슬과 카페가 함께 모여 있다. 제일 모직의 편집숍인 '비이커' 매장은 이태원과자점, 디자인편집숍 '디앤디파트먼트'에 로스팅 카페가 들어서 소품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익선동



한옥을 개조해 만든 향수 공방 겸 카페 '프루스트' 입구.



1 옛맛 햄버그스테이크 경양식1920

한옥을 개조한 경양식당이다. 서울 익선동 한옥마을이 처음 생긴 1920년을 기념해 이름을 '경양식1920'으로 지었다. 길은 나무 기둥과 기와장이 있는 일반 한옥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옛 경양식 집에 들어온 듯한 서구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내부는 분홍색 커튼과 둥근 모양의 분홍색 쿠션이자로 아가자기하게 꾸며졌다. 식당 2층에선 주변 한옥마을 기와지붕을 감상하며 식사할 수 있다. 대표 메뉴는 옛날식 돈가스와 제란프라이가 올라가 있는 햄버그스테이크. 삼겹살 멕시코식 사라다가 있다. 전화 예약은 받지 않는다.

위치 서울 종로구 수표로 28길 17-30 문의 02-744-1920

2 젊은 예술가아지트 식물

세 개의 한옥을 이어 만든 카페 겸 바, 주인은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는 패션 사진작가인 루이스 박과 미술 감사이자 바리스타인 진일환씨다. 이 둘은 낡은 한옥을 개조해 현대적 작품과 빈티지한 물품으로 공간을 꾸몄다. 할머니 방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자개로 만든 상과 의자 등 제각각 다른 디자인의 가구가 눈길을 끈다. 평상시에 조용히 커피와 술을 마시는 공간이지만 종종 인디밴드의 공연과 국내 디자이너 작품이 소개되는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 대표 메뉴는 다치커피를 얼린 얼음에 알코올의 한 종류인 베일리스와 우유를 더해 마시는 '식물커피'다.

위치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46-1 문의 02-747-4854

3 향기마시는 공방 프루스트

조향사가 문을 연 향수 공방 겸 휴처를 판매하는 카페다. 공간은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영감을 받아 마련됐다. 소설 속 주인공이 흥차와 마들렌을 먹다가 그 향기로 깊은 무의식 세계로 빠진다는 내용을 토대로 꾸며졌다. 한쪽 공간에 마련된 공방에서는 향수를 직접 만들고 시향할 수 있다. 향수·향초 제조법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유료 클래스도 운영한다. 흥차와 밀크티를 마시며 마들렌을 먹을 수 있다. 커피나 다른 음료는 판매하지 않는다. 문인성 대표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소설 속 주인공처럼 은은한 향기에 취해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으려 편안히 쉬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치 서울 종로구 수표로 28길 17-26 문의 02-742-3552



개점 70주년을 맞아 리뉴얼 공사를 한 빵집 '태극당' 내부.



1 옛맛 살려 새단장 태극당

1946년 서울 명동에 처음 문을 연 빵집인 태극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아 재단장했다. 이 빵집은 73년 장충동으로 본점이 옮겨지면서 지금의 태극당이 됐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리뉴얼 공사를 통해 내부 공간이 새롭게 변신했다. 40년간 주방으로 쓰던 공간을 터서 내부 카페를 마련했다. 빵을 판매하는 광식도 달랐다. 점원에 일하는 제품을 만들고 전달하는 구조에서 고객이 원하는 빵을 직접 빵반에 골라 담아 구입하는 식이다. 40년 이상 된 벽면 인테리어, 원목가구, 샵드리에 등은 보존해 옛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단팻빵, 고팡 카스텔라, 야채 사라다 같은 빵을 비롯해 과자 사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은 모나카아이스크림이 인기 메뉴다.

위치 서울 중구 동호로 24길 7 문의 02-2279-3152

2 광고인 상상력 자극 헬프시티

2000년 국내 첫 독립광고대행사 '헬프'의 사옥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건축가 송효상씨의 대표작으로, 건물내 체를 서로 연결하면서 중간중간 빈 공간이 있는 독특한 외관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녹스 돛 보이는 '내구성 강판'을 건축물에 적용해 2006년 '건축문화환경'에 선정됐다. 현재 13개의 광고회사가 입주해 있다. 광고인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 설계된 건물로, 곳곳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많다. 건축학도가 많이 찾는다. 2층 로비에는 계절별로 유명 미술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현재는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가 설치돼 있다. 지하에는 예비 광고인을 양성하는 청계구리 광고학교가 있다. 광고인의 모임 공간 등으로 쓰이던 레스토랑은 현재 리뉴얼 중으로 10월 초에 문을 열 예정이다.

위치 서울 중구 동호로 272 문의 02-751-4656

3 미국식 쌀국수집 포포유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미국식 쌀국수를 판매해 주목 받은 식당인 포포유가 장충동에 2점포였다. 지난 7월 문을 연 2점포는 50여 년 된 주택을 개조해 식당으로 꾸며졌다. 주인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베트남계 미국인 셰프 로안(Loan)에게 레시피를 전수받아 다양한 미국식 베트남 음식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표 메뉴는 사골 국물에 미트볼·양지·차돌 같은 고기가 넉넉히 들어간 롬바네 이선 쌀국수와 한국인 입맛에 맞춰 기존 쌀국수에 매콤함을 더한 해물 쌀국수가 있다. 베트남식 '반미(banh mi)' 샌드위치도 추천 메뉴다.

위치 서울 중구 동호로 264 문의 02-2266-9886



지난 6월 서울 한남동에 문을 연 뮤직스튜디오 '바이닐&플라스틱'.



1 LP·CD 2만5000여장 바이닐&플라스틱

지난 6월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근처에 현대카드의 뮤직스튜디오 '바이닐&플라스틱'이 문을 열었다. 9000여 장의 LP(바이닐)와 1만6000장의 CD(플라스틱)를 갖춰 '바이닐&플라스틱'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1층엔 바이닐과 캐세트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2층엔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CD플레이어 청음공간·DJ스테이션·카페가 각각 마련돼 있다. 뮤직 액세서리숍에서 헤드폰·이어폰, 핸드드레드, 턴테이블, 티셔츠, 피규어 등 다양한 음악 관련 소품을 구매할 수 있다. 평일·토요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은 낮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 및 설·추석 연휴는 휴무다.

위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48 문의 02-2014-7800

2 흡입속 스토어 시리즈코너

바이닐&플라스틱 옆에 자리 잡은 편집숍 '시리즈코너'는 패션, 액세서리, 소품, 뷰티, 식음료를 한데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흡입속 스토어다. 시리즈코너 내부는 직수입 의류, 핸드메이드 가구, 유명 작가의 소품 등을 선보인다. 지난 5월엔 호주 스킨케어 브랜드 이슬이 시리즈코너 매장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방문 고객은 전시·음식점·불거리 등 주변 지역의 훌륭한 공간을 추천 받고 향신료와 티파인 등을 맛보는 이슬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매장을 둘러싼 뒤에는 테라스에 있는 '머그포레스트' 카페에서 한남동 거리를 바라보며 대표 휴식을 취해도 좋다. 당근 케이크와 와사비라테 등이 대표 메뉴다.

위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44 문의 02-797-0710



3 창작 산실 갤러리 미술모아당구장

한남동 독서당로의 구석진 골목엔 젊은 예술가들이 자주 찾는 장소가 있다. 지난해 다뮤지엄의 프로젝트스페이스 공간으로 꾸며진 '미술모아당구장'이다. 당구장이 있던 허름한 건물이 갤러리로 재탄생했다. 작가와 관객,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문화예술 공간이다. 다양한 분야의 국내 작가를 발굴해 독창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설치, 미디어아트, 사진, 건축, 패션, 가구 디자인,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색다른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10월 16일까지 포토그래퍼 프로젝트 그룹 'AMQ'의 전시가 열린다.

위치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73-4 문의 02-3785-0667



Tatjana Patitz for Jil Sander, 1992

대림미술관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4길 21
2016. 10. 6~2017. 3. 26 | 02-720-0667

거침 없이, 아름답게

닉 나이트 사진展



영국 출신의 닉 나이트는 과감하고 실험적인 촬영 기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온 사진작가다. 스스로 '이미지 메이커(Image Maker)'라 칭하며 다큐멘터리에서 패션 사진, 디지털 영상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해 온 그의 전시가 서울 중로구 대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닉 나이트 사진전-거침없이, 아름답게〉는 다큐멘터리와 패션계의 보편적인 시선에 도전한 화보,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의 결과물, 이미지에 움직임을 더한 패션 필름에 이르기까지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의 통념을 차별화된 이미지로 탈바꿈해 온 사진가 닉 나이트의 작품을 총망라해 선보인다.

전시는 여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째 섹션은 1982년 사진집으로 출간된 이후 세계 최초로 대림미술관에서 공개되는 '스킨헤드(SKINHEADS)', 둘째 섹션은 동시대 대표 예술계 인사들을 그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로 촬영한 '초상사진(PORTRAITS)'이다. 셋째·넷째 섹션은 요지 야마모토, 질 샌더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협업한 파격적인 패션 화보를 소개하는 '디자이너 모노그래프(DESIGNER MONOGRAPHS)', 금기시되거나 소외되었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도발적인 메시지를 패션과 결합한 '페인팅&폴리티크스(PAINTING&POLITICS)'다. 나머지 섹션에서는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허문 작품들과 3D를 이용해 실험적으로 조각한 '정물화&케이트(STILL LIFE&KATE)', 닉 나이트와 각별한 사이였던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매퀸과의 협업 영상 등을 소개하는 '패션필름(FASHION FILM)'으로 꾸며졌다.



1 Red Bustle, Yohji Yamamoto, 1986 2 Stephen Jones, 1985 3 Pink Powder, Lily Donaldson wearing John Galliano, 2008 4 Rose I, 2012 5 Susie Smoking, Susie Bick for Yohji Yamamoto, 1988